

시즌2-1차

3월 학평 대비

예비 평가 지문 분석

[2022학년도 시즌2 제1차 예비평가 지문 분석]

[1~4] 현대시 : (가) 김광섭, 「생의 감각」

* 작품 평가

시인이 병고를 겪으며 죽음의 위기를 극복한 뒤 쓴 작품이다. 제1연과 제2연은 현재 시제, 제3연과 제4연은 과거 시제로 시간의 역전적 구성이 나타나는데, 전반부는 병고를 이겨 낸 이후의 상황을, 후반부는 병마와 싸우던 시기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살펴보자.

* 작품 분석

제1연 : 병고를 이겨 내고 맞이하는 아침 (현재)

여명(黎明, 희미하게 날이 밝아 오는 빛. 희망의 빛)의 종이가 울린다.
⇒ 병고를 이겨 내고 맞이하는 아침의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명을 종소리의 울림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공감각[→ 시각의 청각화]으로, 여명에 들리는 종소리를 표현한 것이라면 복합 감각으로 볼 수 있다.
새벽 별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같이 산다.
⇒ 새로 맞이하는 아침 속에서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도 되새긴다. 닭이 운다. 개가 짖는다.
⇒ 평범한 일상의 소리를 통해 자신이 살아 있음을 감각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오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다.
⇒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 다시 보게 된 세상은 별 게 다 새삼스럽게 보이나 보다. 화자는 오가는 사람들의 예사로운 모습을 새삼 응시하고 있는데, 이걸 화자가 그것을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제2연 : 자기 주도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현재)

오는 사람이 내게로 오고
가는 사람이 내게서 간다.
⇒ 화자는 제1연에서 응시한 모습들에 자신이 병고를 겪으며 깨닫게 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여전하지만 그 관계의 중심에 자신이 있음을 새삼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 이는 화자가 관계 속에서 자기 존재가 갖는 의미와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음을 의미한다. 삶을 창조해 가는 자기 자신의 주도적인 역할을 말하고 있는 셈이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인공 공이 되어야 더불어 살아가는 삶도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뜻으로 알아 두면 더 좋겠다.

제3연 : 병고로 시들어 간 생명력 (과거)

아름에 하늘이 무너졌다.
⇒ 병고로 인한 고통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깨진 하늘이 아물 때에도
⇒ 큰 위기를 넘기고 다소 몸을 추스르긴 했어도
가슴에 뼈가 서지 못해서
⇒ '뼈'는 우리 신체를 지탱한다. 그럼 마음을 지탱하는 건 의지가 아닐까? 즉, 화자는 병의 위기를 간신히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고 하는 의지가 굳건하지 못했다고 술회하고 있는 것이다.
푸른빛은 장마에
넘쳐흐르는 흐린 강물 위에 떠서 황야에 갔다.

⇒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화자의 생명력은 멀리 사라져 버릴 뻔했던 것이다. 푸른 풀들이 장마에 휩쓸려 황야로 떠나려가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이 시행들에는 병고로 생명력을 잃고 황폐해져 가는 화자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다.

제4연 : 의지적 자아의 회복 (과거)

나는 무너지는 독에 혼자 섰다.
⇒ 허물어지는 삶의 기반 혹은 생사의 경계선에 고독하게 선 모습이다. 기슭에는 채송화가 무더기로 피어서
⇒ 위태로운 환경에서도 함께 어우러져 생명력을 발산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더할 나위 없겠다.
⇒ 제3연에서 '깨진 하늘이 아물 때'에도 '뼈가 서지 못해서' 점점 황폐해져 갔다고 했다. 그러나, 제4연에서 '채송화'는 무너져 내리는 독의 기슭에서도 '무더기로 피어서' 생명력을 발산하고 있다. 화자는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던 자신과 대비하여 채송화가 생명력을 발산하는 모습을 부각하고 있는 게다.
생(生)의 감각(感覺)을 흔들어 주었다.
⇒ 여기서 '생의 감각'은 '채송화'가 보여 준 것으로 화자가 자신에게도 있는 것임을 깨우친 어떤 것이다.
⇒ 화자는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채송화의 모습에서 강렬한 생명의 의지를 발견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마지막 행은 채송화가 삶에 대한 의지를 강렬하게 자극해 주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다.

[5~10] 과학 : 산화 스트레스 상황에 의한 동맥 경화

* 지문 평가

전형적인 과학 지문이자 과정 중심의 지문이다. 차분하게 각각의 과정을 정리하고, 그래서 동맥 경화가 왜 발생하고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해했다면 충분하다.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과학 - 생리학 - 동맥 경화
 미토콘드리아, 활성 산소, 산화 스트레스 상황, 콜레스테롤, 저밀도 지단백(LDL),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 산화 LDL-c, 내막, 중막, 외막, 세포 부착 분자, 대식 세포, LDL 수용체, 청소 수용체, 포말 세포, 혈관 평활근 세포, 콜라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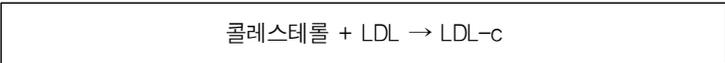
* 지문 분석

문단1 : 활성 산소의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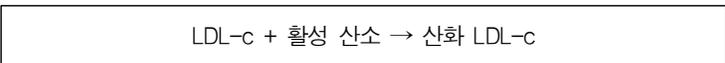
- 1) 세포 내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는 섭취된 영양소와 산소를 이용하여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한다. 이 과정에서 **산소**는 전자와 결합하면서 여러 중간 산물들로 순차 전환된 후에 물이 된다. 산소나 물과 달리 화학적으로 불안정하여 반응성이 큰, 이들 중간 산물을 **‘활성 산소’**라 한다.
 ⇒ ‘활성 산소’는 산소와 전자의 결합으로 생성되는 중간 산물로, 최종적으로는 물이 되어야 하는데
- 2) 활성 산소의 일부는 물로 전환되지 못하고 혈액에 녹아 들어가 **혈관을 따라 이동하며 세포 기능을 조절하는 데에 쓰이는 신호 전달 물질**로 작용하기도 한다.
 ⇒ 그러는 대신 세포 내 소기관을 벗어나 이런 식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도 한다.
- 3) 하지만 체내에 활성 산소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산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다수의 활성 산소가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동맥 경화(= 동맥의 벽이 두꺼워지고 굳어져서 탄력을 잃는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산화 스트레스 상황’은 동맥 경화의 원인이다. 구체적으로 ‘활성 산소’가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되는 거다.

문단2 : 산화 LDL-c가 제거되는 ‘정상적인 면역 반응’

- 1)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지질 성분으로, 간에서 생성되거나 음식을 통해 섭취된 뒤 **저밀도 지단백(LDL)**과 결합하여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의 형태로 혈관을 따라 각 세포에 공급된다.
 ⇒ ‘콜레스테롤’도 마냥 나쁜 성분은 아니다. 필요한 성분이다.



- 2) 이 과정에서 LDL-c의 일부는 [필요한 세포에 공급되는 대신에] 혈액 속의 활성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 LDL-c’**를 형성한 뒤 혈관의 손상된 내막을 뚫고 들어가기도 한다. 혈관은 혈액과 접하는 **내막**, 이를 감싸는 **중막**, 그리고 가장 바깥쪽의 **외막**으로 이루어지는데, 내막을 구성하는 **내피 세포의 세포막**은 고혈압이나 음주 등의 자극에 의해 쉽게 손상되어 투과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 아직까지는 ‘동맥 경화’의 원인이 되는 ‘산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 3) [손상된] 내피 세포를 뚫고 들어간 ‘산화 LDL-c’는 내막을 가로질러 **중막**으로 이동한다. 이때 내피 세포는 ‘산화 LDL-c’를 해로운 이물질로

인식하고 이로부터 혈관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표면에 **세포 부착 분자**를 발현시킨다.

⇒ ‘세포 부착 분자’는 내피 세포의 표면에 발현된다.

- 4) 세포 부착 분자는 혈액 속에 존재하는 **단핵구**를 포획하여 중막으로 이동시키며, 이 단핵구는 그곳에서 **대식 세포**로 분화한다. **대식 세포**는 체내에 침입한 병원체나 이물질, 또는 손상된 세포를 섭취하여 분해하는 면역 세포로, 자신의 표면에 있는 **LDL 수용체**를 이용하여 ‘산화 LDL-c’를 섭취한 뒤에 분해하는 방식으로 이를 제거한다.

⇒ ‘산화 LDL-c’가 제거되는 일련의 과정을 잘 파악해야겠다.

<정상적인 면역 반응>

- 1) 산화 LDL-c가 손상된 내피 세포를 투과하여 중막으로 이동한다.
- 2) 내피 세포 표면에 발현된 세포 부착 분자가 단핵구를 중막으로 이동시킨다.
- 3) 단핵구는 중막에서 대식 세포로 분화한다.
- 4) 대식 세포가 중막에서 LDL 수용체를 이용해 산화 LDL-c를 제거한다.

⇒ 다시 말하지만, 아직까지는 ‘동맥 경화’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문단3 : 산화 스트레스 상황

- 1) 그런데 노화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산화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면 이러한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문제가 나타난다.
[맥락 짚기] 문단2의 일련의 과정에 문제가 생긴단다. 이제 화제의 초점을 ‘동맥 경화’의 원인으로 옮겨 보자.
- 2) ‘산화 LDL-c’의 양이 LDL 수용체가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면 ‘산화 LDL-c’가 대식 세포 표면의 **청소 수용체**에도 결합하면서 대식 세포 내부로 섭취된다.
 ⇒ ‘산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활성 산소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만큼 ‘산화 LDL-c’의 양 역시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겠다.
[주목] 대식 세포 표면에는 ‘LDL 수용체’도 있고 ‘청소 수용체’도 있는데, 산화 LDL-c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그것이 ‘청소 수용체’로도 섭취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겠다.
- 3) 그런데 청소 수용체와 결합한 ‘산화 LDL-c’는 [LDL 수용체와 결합한 것과 달리] 분해되지 못해서, 대식 세포는 점점 부풀어 올라 거품 모양을 띠 **포말 세포**가 된다. 중막의 대식 세포들에서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면 축적되는 **지질**로 인해 중막이 두꺼워지면서 혈류 통로가 좁아진다.
 ⇒ 막상 지질을 섭취했지만 분해할 길은 없으니 ‘대식 세포’는 점점 뚱뚱해질 수밖에 없겠다. 문단2와 비교해서 이해해 두자.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

- 1) 지나치게 많은 산화 LDL-c가 손상된 내피 세포를 투과하여 중막으로 이동한다.
- 2) 내피 세포 표면에 발현된 세포 부착 분자가 단핵구를 중막으로 이동시킨다.
- 3) 단핵구는 중막에서 대식 세포로 분화한다.
- 4) 대식 세포가 중막에서 LDL 수용체를 이용해 산화 LDL-c를 제거하려 하지만, 처리해야 할 산화 LDL-c가 너무 많다.
- 5) 이 경우 산화 LDL-c는 대식 세포의 청소 수용체를 통해서도 섭취되지만, 분해되지 못한다.
- 6) 그로 인해 대식 세포가 점점 부풀어 올라 포말 세포가 된다.
- 7) 포말 세포로 인해 중막이 두꺼워져서 혈류 통로가 좁아진다.

문단4 : 동맥 경화

- 1) 중막에 지질이 일정 수준 이상 축적되면 중막을 구성하는 세포인 **혈관 평활근 세포**들 중의 일부가 내막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 이게 끝이 아닌가 보다. 문단3에서는 단핵구가 중막으로 이동하여 ‘대식 세포’로 분화하였다면 여기서는 ‘혈관 평활근 세포’가 중막에서 내막으로 이동하고 있다. 헛갈리지 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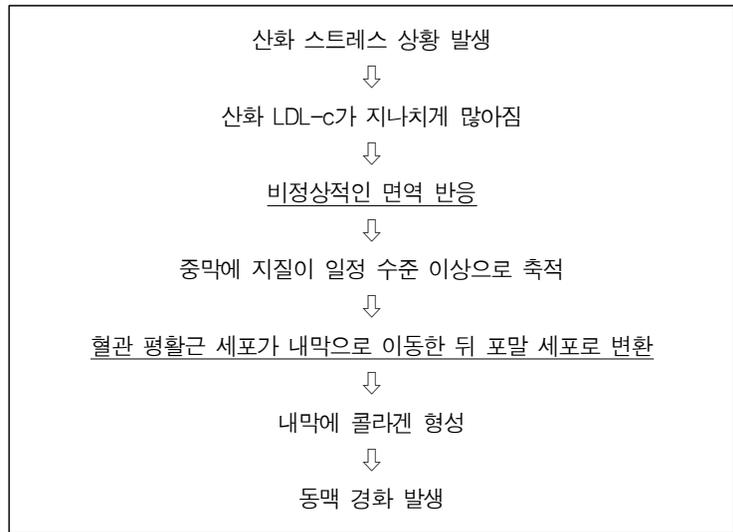
2) 이 세포들 역시 내막에서 청소 수용체를 통해 혈액 속의 '산화 LDL-c'를 섭취하여 포말 세포가 되며, 이 포말 세포들은 자신의 주위를 둘러싸는 물질인 콜라겐을 만들어 낸다.

⇒ 중막에서는 '포말 세포'로 인해 혈류 통로가 좁아지고, 내막에서는 '포말 세포'로 인해 콜라겐이 만들어진다.

중막	내막
대식 세포의 청소 수용체가 중막의 산화 LDL-c를 섭취함	혈관 평활근 세포의 청소 수용체가 혈액 속의 산화 LDL-c를 섭취함
↓	↓
대식 세포가 포말 세포가 됨	혈관 평활근 세포가 포말 세포가 됨
↓	↓
중막이 두꺼워져서 혈류 통로가 좁아짐	내막에 콜라겐이 생성됨

3) 포말 세포들 사이의 공간을 콜라겐이 가득 채우면서 엉겨 붙으면 내막 표면에 단단한 섬유판이 형성되는데, 그 결과 혈관 표면의 탄성이 줄어들어 동맥 경화가 나타난다.

⇒ 정리하자. '산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문단3과 같이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발생하여 중막에 지질이 축적된다. 이는 문단4와 같이 콜라겐 생성의 원인이 된다. 그로 인해 최종적으로 동맥 경화가 발생한다.



문단5 : 동맥 경화의 위험성

동맥 경화는 혈류를 방해하기 때문에, 특정 생체 조직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동맥 경화가 발생하면 해당 생체 조직이 혈액으로부터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국부적인 빈혈 상태인 허혈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심장이나 뇌에 발생하는 허혈은 해당 조직들이 괴사되는 심근 경색이나 뇌경색과 같은 심각한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동맥 경화가 발생하면 이처럼 심각한 질환이 동반될 수 있다.



[11~15] 고전시가 : (가) 송순, 「면양정가」

* 수록 지문 평가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한 작품이다. 수록 지문은 「면양정가」의 서사로서 면양정의 입지와 면양정에서 보는 풍경을 그렸다. 의인법, 활유법, 대구법, 열거법 등을 활용한 역동적인 묘사,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가 두드러진다. 의미와 느낌을 파악해 두자.

* 수록 지문 분석

토막1 : 제월봉

무등산 한 활개 뒀가 동쪽으로 뻗어 있어
 → 무등산의 한 줄기인 산이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떼쳐 와(= 떨치고 나와) 제월봉[→ 전남 담양에 있는 산]이 되었거늘
 → 멀리 떨어져 나와 제월봉이 되었거늘
 ⇒ 소재인 '제월봉'을 무등산의 동쪽으로 뻗은 지맥(支脈)과 관련지어 표현하고 있는데, '멀리 떼쳐 와'서 제월봉이 되었다고 한 걸 보면 무등산의 지맥과 제월봉이 물리적으로 이어져 있지는 않은가 보다. 뒤에 이어지는 제월봉이 '무변대야'에 우뚝 서 있다는 데서도 제월봉이 다른 산줄기와 연이어져 있지는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무변대야(無邊大野, 끝없이 넓은 들판)에 무슨 짐작 하노라
 → [제월봉은] 끝없이 넓은 들판에서 무슨 생각을 하노라고
 ⇒ '제월봉'을 의인화한 표현이다.
 일곱 굽이 한데 뭉쳐 우뚝우뚝 벌여 놓은 듯
 → 일곱 굽이를 한 곳에 모아 우뚝우뚝 벌여 놓은 듯
 ⇒ 제월봉이 일곱 개의 굽이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 잠잠. 잠깐 자는 잠]을 갓 깨어 머리를 앓혔으니
 → 선잠을 막 깨어 머리를 앓은 듯하니
 ⇒ 일곱 개의 줄기 중에서 가운데 줄기를 '늙은 용'의 모습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여기까지는 제월봉의 위치와 형세를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이 가사 제목이 '제월봉'이 아니라 '면양정가'인데 왜 제월봉 얘길 하는 걸까? 그거야 면양정이 제월봉에 있으니까. 이제까지 무등산에서 제월봉으로 이동했으니, 이제 곧 화자의 시선은 면양정에 이를 것이다.

토막2 : 면양정

너러바위 위에 송죽을 헤치고 정자를 앉혔으니
 → 넓고 평평한 바위 위에 소나무, 대나무를 헤치고 정자를 앉혔으니
 ⇒ '정자'는 당연히 면양정을 가리킨다. 면양정은 소나무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넓은 바위 위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게다.
 구름 탄 청학(靑鶴, 푸른 학. '면양정'을 비유한 말)이 천 리를 가리라 두 날개[→ '면양정 지붕'을 비유한 말] 벌렸는 듯
 → [정자의 모습이] 구름을 탄 푸른 학이 천 리를 가려고 두 날개를 벌리고 있는 듯
 ⇒ '청학'의 원관념은 '면양정'이다. 한옥의 날렵하게 뻗은 기와지붕을 떠올려 보자. 그 모습이 학이 날개를 펼친 것 같단 얘기가.
 ⇒ 여기까지는 면양정의 모습을 그렸다.

토막3 : 면양정에서 바라본 풍경1

옥천산 용천산 내린 물이
 → 옥천산, 용천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 정자 앞 들판에 흐르는 물로 화제가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자.

정자 앞 넓은 들에 울울히 퍼진 듯이

→ 정자 앞 넓은 들에 한 울 한 울 펼쳐진 듯이

⇒ 원문은 '울울(兀兀)히'인데, 이는 '① 꼼짝도 하지 않고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똑바로 앉아 있는 모양 ② 산이나 바위 따위가 우뚝우뚝 솟아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울울히'를 ①의 의미로 해석하면, 뒤의 묘사에서 두드러지는 물의 역동적인 느낌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②의 의미를 적용해서 물이 산처럼 우뚝우뚝 솟아 있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다. 따라서 '울울이(= 울마다. 한 울 한 울)'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는 편이 자연스럽겠다.

넓거든 기노라[→ 이어지는 구절과 대구를 맞추어 '기지 마나(길지 말거나)'의 뜻으로 해석하는 편이 문맥상 더 자연스럽겠다.] 푸르거든 희지 마나

→ 넓거든 길지나 말고 푸르거든 희지나 말지

⇒ 넓든지 길든지 둘 중 하나만 하는 게 보통일 텐데, 이 물은 넓고도 길다는 거다. 마찬가지로 푸르고도 희다는 것이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탄하는 것이라는 점은 놓치지 말자.

쌍룡이 뒤트는 듯 긴 비단 펼쳤는 듯

→ 두 마리의 용이 몸을 뒤트는 듯, 긴 비단을 짝 펼쳐 놓은 듯

⇒ 묘사와 비유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나타내는 대상이 정자 앞 넓은 들판에 흐르는 물이라는 거, 잊지 말자. 쌍룡이 몸을 뒤트는 모습에 비유한 걸 보면, 직선으로 잔잔하게 흐르는 물은 아닌 거 같다.

어드러로 가노라 무슨 일 바빠서

→ 어디로 가노라고 무슨 일이 바빠서

⇒ 물이 무슨 바쁜 일이라도 있는 건지 서둘러 가고 있다. 의인화된 표현이다.

닫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 달리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 '밤낮으로 흐르는' 건 비유도 추측도 아닌데 왜 '-느 듯'이라고 했을까? 아마 리듬감을 위한 배려일 게다.

⇒ 자, 여기까지에서 면양정 앞 들판에 흐르는 물을 그려 내고 있는데, 화자가 어디서 이 물을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맞다. 그는 아마 면양정에 앉아서 정자 앞 들판의 물을 바라보는 것일 게다. 들판은 화자의 눈앞에 넓게 펼쳐져 있고, 물은 그 들판에 넓고도 길게 흐르면서 바빠 달려가는 듯 역동적으로 흐르고 있다.

토막4 : 면양정에서 바라본 풍경2

물 좇은 사정(沙汀, 물가의 모래밭)은 눈같이 퍼졌거든

→ 물 따라 펼쳐진 모래밭은 눈같이 펼쳐져 있는데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 어지럽게 구는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고

⇒ 화제가 물가 모래밭으로, 다시 물가 모래밭의 기러기로 옮겨진다.

앉으락 내리락 모이락 흠으락

→ 앉았다 내렸다 모였다 흠어졌다

노화(蘆花, 갈대꽃)를 사이 두고 우러곰[→ 매우 울면서] 좇느뇨

→ 갈대꽃을 사이에 두고 울면서 따라다니는가

⇒ 물을 따라 이동하던 화자의 시선이 물 주변의 자연물들에 잠시 머물렀다.

토막5 : 면양정에서 바라본 풍경3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

→ 넓은 길 밖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꽃은 것은 뉘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 두르고 꽃은 것은 산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 먼 하늘 아래에 둘러져 있고 꽃혀 있는 듯 보이는 것이 병풍이나 그림일 리는 없다. 당연히 산일 거다. 멀리 늘어진 산들의 모습이 마치 그림 그려진 병풍을 둘러놓은 것 같다는 느낌을 표현한 거다.

높은 듯 낮은 듯 그치는 듯 있는 듯

→ 높은 듯 낮은 듯 끊어지는 듯 이어지는 듯

⇒ 멀리 보이는 산들의 실루엣은 높아지다 낮아지고 끊어지다 이어진다는 거다.

숨겨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 숨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 산의 다양한 모습을 활유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양하여

→ 어지러운 가운데, 잘난 채하여

하늘도 저어치 않고 우뚝이 섰는 것이 추월산 머리 짓고

→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뚝 서 있는 것이 추월산이 머리를 이루고

⇒ 산들이 그리는 선이 다양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잘난 채하는 여러 봉우리들이 우뚝 솟아 있는데, 그중 추월산이 가장 높은 모양이다. 의인화된 표현이다.

용귀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벌였거든

→ 용귀산,, 금성산이 허공에 늘어서 있으니

원근(遠近) 창애(蒼崖, 높은 절벽)에 머문 것도 하도 할사

→ 멀고 가까운 푸른 절벽에 머문 것[→ 펼쳐진 모양]도 많기도 많구나.

⇒ 면양정에서 멀리 보이는 산들의 모습을 그렸다. 이 대목은 토막3이나 토막4에 비해 원경(遠景)에 해당한다. 면양정에서 바라본 풍경의 시선이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감

[16~21] 사회 통합

: 부가 가치세액의 산출과 면세 조치의 한계

* 지문 평가

얼핏 보면 숫자를 다루는, 즉 개념들 간의 관계를 주로 다루는 지문으로 오해할 수 있겠지만 그 본질은 아주 전형적인 법학 지문이다. ‘부가 가치세’의 과세 방식이 무엇인지, 왜 그에 대한 면세 조치로는 기대한 효과를 누릴 수 없는지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지문을 읽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사회 - 법학 - 세법, 부가 가치세
 (가) 부가 가치세, 부가 가치, 납세자, 담세자, 부가 가치세액, 매입세액 공제 방식, 매출세액, 매입세액, 전가의 원리
 (나) 수평적 공평성, 수직적 공평성, 조세 부담의 역진성, 면세 제도, 환수 효과, 누적 효과

* (가) 지문 분석

문단1 : 부가 가치세

- 1) 국제 수입의 30% 이상에 달하는 **부가 가치세**는 원료 생산, 중간재 생산, 소비자재 생산 등 각 **생산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 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 ‘부가 가치세’는 부가 가치에 매기는 세금이다.
- 2) **부가 가치**는 각 생산 단계에서 생산된 상품의 가치에서 **중간 투입물의 가치**를 뺀 것과 같다.
 ⇒ ‘중간 투입물의 가치’가 뭔지 알아야 ‘부가 가치’도 직접 구할 수 있을 텐데, 일단 넘어가자.

- 소비자재의 부가 가치 = 소비자재의 가치 - 중간 투입물의 가치
- 중간재의 부가 가치 = 중간재의 가치 - 중간 투입물의 가치
- 원료의 부가 가치 = 원료의 가치 - 중간 투입물의 가치

- 3)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 가치세를 걷은 후 신고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을 따른다. 부가 가치세는 **직접 납세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인 사업자와 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납세자인 최종 소비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인 것이다.**
 ⇒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기게 된다.

- 의문 1. 다음 단계의 사업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어떻게 부가 가치세를 걷는다는 걸까?
- 의문 2. 다른 사업자에게 부가 가치세를 걷는다면서 왜 최종 소비자가 부가 가치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걸까?

문단2 : 매입세액 공제 방식

- 1) [각 생산 단계의]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 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는 특정 과세 기간의 매출액에 부가 가치세율인 10%를 곱하여 산출한 **매출세액**에서, 생산의 전(前) 단계로부터 **중간 투입물을** 공급받으며 지불한 금액인 **매입액**에 대한 부가 가치세액, 즉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하는 방식이다.
 ⇒ 결국 문단1-2)의 ‘중간 투입물’은 각 생산 단계의 이전 단계에서 생산된 상품을 가리킨다. ‘원료 사업자’는 애초에 이전 단계라는 게 없으니 공제될 세금도 없나 보다.

- 소비자재 사업자 : 소비자재의 매출세액 - 중간재의 매입세액
- 중간재 사업자 : 중간재의 매출세액 - 원료의 매입세액
- 원료 사업자 : 원료의 매출세액

- 2) 소비자를 대상으로 연간 90만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여 **매출세액**이 9만 원인 사업자 X가 전 단계의 사업자 Y에게 매입액 60만 원과 **매입세액** 6만 원을 합쳐 66만 원을 지불했다면, X가 신고 납부해야 할 **부가 가치세액**은 3만 원이 된다.
 ⇒ 사업자 X가 실제로 지불하는 비용은 60만 원이 아닌, 매입세액을 포함한 **66만 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자.

<사업자 X의 부가 가치세액 : 매입세액 공제 방식>

- 매출세액 = 90만 원 × 10% = 9만 원
- 매입세액 = 60만 원 × 10% = 6만 원
- 부가 가치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3만 원

- 3) 이때 X로부터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최종 소비자**는 가격으로 총 99만 원을 지불하는데, 그중 부가 가치세 9만 원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셈이다.
 ⇒ 마찬가지로 **최종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비용 역시 90만 원이 아닌, X의 매출세액을 포함한 **99만 원**이다. 이런 정리가 가능하겠다.

	사업자 Y	사업자 X	최종 소비자
매출액	60만 원	90만 원	
지불		66만 원	99만 원
매출세액	6만 원	9만 원	
공제		6만 원	
부가 가치세액	납세자	납세자	담세자
	6만 원	3만 원	9만 원

⇒ 사업자는 다음 단계의 사업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매출세액을 포함한 가격**을 매긴다. 그렇게 걷은 세금 중에서 **직전 생산 단계에 자신이 납입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만큼이 사업자가 신고 납부해야 하는 ‘**부가 가치세액**’이다. 이때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만큼의 매입세액이 이미 이전 단계의 생산자에 의해 신고 납부되었기 때문이었다.

[**백락 짚기**] 문단1-3)에서 언급한 의문 1이 해소되는 시점이다.

문단3 : 전가의 원리

- 1)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서 부가 가치를 구한 다음 세율을 곱하여 부가 가치세액을 결정하는 ‘**거래액 공제 방식**’과 비교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식**’은 **부가 가치를 구하지 않고 산출하며 세액에는 차이가 없으나**
 ⇒ ‘**거래액 공제 방식**’은 이런 식이겠다. 똑같은 세액이 달리 산출될 이유는 물론 없다. 방식만 다를 뿐이다.

<사업자 X의 부가 가치세액 : 거래액 공제 방식>

- 매출액 = 90만 원
- 매입액 = 60만 원
- 부가 가치 = 매출액 - 매입액 = 30만 원
- 부가 가치세액 = 부가 가치 × 10% = 3만 원

- 2) 거래 당사자 간의 감시를 유도해 탈세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매입세액 공제 방식**’은 **전 단계의 사업자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받아 그 사업자가 해당 세액의 부가 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이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 예를 들어 사업자 X는 6만 원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Y의 세금 계산서를 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결국 X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Y의 납세를 감시하도록 유도하는 셈이다.
- 3) 이 방식은 부가 가치세가 생산 단계에서 계속 다음 단계로 전가되어

결국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전가의 원리’**에 기초해 있음을 잘 드러낸다.

⇒ 사업자 Y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 가치세액 6만 원은 ①사업자 X에게 전가되었다가, ②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사업자 X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 가치세액 3만 원 또한 마찬가지로 ③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사업자 Y	사업자 X	최종 소비자
매출액	60만 원	90만 원	
지불		66만 원	99만 원
매출세액	6만 원	9만 원	
공제		6만 원	
부가 가치세액	납세자 ① 6만 원	② 납세자 3만 원	③ 납세자 9만 원

⇒ 사업자는 자신을 포함하여 이전 단계까지 납부해야 하는 ‘부가 가치세’를 더하여 다음 단계의 사업자에게 걷는다. 즉 그만큼을 전가하게 된다. 이렇게 부가 가치세는 누적되어 전가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으로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최종 소비자’가 납세자가 되는 거다.

[맥락 짚기] 문단1-3)에서 언급한 의문 2가 해소되는 시점이다.

*** (나) 지문 분석**

문단1 : 부가 가치세의 공평성 여부

1) **부가 가치세**는 일정한 **비례 세율** 구조여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상품 거래나 경제의 흐름을 왜곡하지 않는 조세 구조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공평 과세의 측면에서는 심각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공평성의 개념을 **수평적 공평성**처럼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비율로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본다면 공평한 조세일 수 있겠으나,

⇒ (가)의 문단2-1)에서 알 수 있듯이 부가 가치세는 10%로 정해져 있다. 납세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일정한 세율이 매겨진다는 얘기다. 이런 걸 ‘비례 세율 구조’라 한다.

2) **소득 수준에 따라 조세 부담을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성**에 입각하여 본다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더 높은 비율의 조세를 부담하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을 낳는 것이다.

⇒ 이런 관점에서는 ‘비례 세율 구조’는 불공평하다. 소득 수준이 낮음에도 균등한 비율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단2 : 역진성

1) 이러한 **역진성**은 소득 대비 소비의 비중이 저소득층에서보다 고소득층에서 더 작기 때문에 발생한다.

⇒ 10배를 더 번다고 10배를 더 소비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2) 예컨대 연소득이 1천만 원인 사람이 부가 가치세[→ 90만 원]를 포함하여 990만 원의 소비를 하면 소득 대비 부가 가치세 부담률은 9%이고, 연소득이 1억 원인 사람이 6,600만 원의 소비를 하면 그 부담률은 6%인 것이다[→ 부가 가치세는 600만 원].

⇒ 예시의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10배나 더 번는데도 부가 가치세는 대략 7배만 더 내기 때문에 ‘역진성’이 발생한다는 거다.

문단3 : 면세 제도와 그 한계

1) 역진성을 완화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생활필수품에 과세를 면제하는 면세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다. 면세 조치가 내려지면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부가 가치세액을 더하지 않은 채 가격을 매기고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지도 않는다.

⇒ 예를 들어 (가)의 문단2-2)에서 Y가 면세 품목을 생산한다면, Y는 더 이상 6만 원의 부가 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60만 원으로 가격을 매긴다. 결과적으로 X의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2) 저소득층의 경우 전체 소비에서 생활필수품 소비의 비중이 크므로,

생활필수품에 면세 조치가 내려지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면세 효과는 면세 품목을 최종 소비자가 소비할 때에만 나타날 뿐,

⇒ 이때 X가 다음 단계의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라면 1)의 목표대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겠지만

3) 면세 품목을 중간 투입물로 하여 과세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면세 효과가 사라지거나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가)의 문단2-2)처럼 다음 단계의 사업자라면 실제 저소득층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문단4 : 면세 제도의 예시

1) 생산 단계가 1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일 때, 매출액이 1단계 100만 원, 2단계 200만 원, 3단계 300만 원이어서 납부해야 할 부가 가치세액이 각 단계별 10만 원씩이라고 하자.

[맥락 짚기] 문단3-3)에서 짚은 ‘면세 제도의 부작용’을 보여주기 위해 단순화한 상황이다. 잘 정리하면서 천천히 따라가 보자. 문제를 풀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하다.

	1단계	2단계	3단계
매출액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지불		110만 원	220만 원
매출세액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공제		10만 원	20만 원
부가 가치세액	납세자 ① 10만 원	② 납세자 10만 원	③ 납세자 10만 원

⇒ ‘1단계 사업자’의 매출세액은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이다. 이전 단계의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는 받을 수 없고, 납부해야 하는 ‘부가 가치세액’은 10만 원이다. 이는 ① ‘2단계 사업자’에게 전가된다.

⇒ ‘2단계 사업자’의 매출세액은 200만 원의 10%인 20만 원이다. 10만 원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어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부가 가치세액’은 10만 원이다. ③ 이는 ‘3단계 사업자’에게 전가된다. 이때 ② ‘1단계 사업자의 부가 가치세액’도 누적되어 전가된다.

⇒ ‘3단계 사업자’의 매출세액은 300만 원의 10%인 30만 원이다. 20만 원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어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부가 가치세액’은 10만 원이다.

⇒ 이때 최종 소비자에게는 총 30만 원이 전가될 것이다[→ 1단계 사업자, 2단계 사업자, 3단계 사업자의 부가 가치세액이 누적된 만큼이다.].

2) 이 상황에서 2단계의 품목에만 면세 조치가 내려진다면, 2단계 사업자는 1단계에 지불한 매입세액인 10만 원을 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가격에 포함시켜 3단계에 부담시킬 것이다. 이는 결국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 이 경우에는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참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면세 조치가 내려진 2단계 사업자가 1단계에 지불한 매입세액을 가격에 포함시켜 다음 단계로 전가하는 상황을 일반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 때문에 이후 단계에서의 부가 가치세액 역시 더 커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3) 2단계 사업자가 이를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환수 효과와 누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3단계 사업자는 2단계 사업자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받지 못해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30만 원의 부가 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 ‘2단계 사업자’가 지금까지의 부가 가치세액을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3단계 사업자는 공제를 받지 못하여 면세 조치가 없었을 경우보다 20만 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1단계	2단계	3단계
매출액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지불		110만 원	200만 원
매출세액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공제		-	0원
부가 가치세액	납세자 ① 10만 원	납세자 면제	납세자 30만 원

4) 그중 10만 원은 2단계의 면세 조치에 따라 3단계에서 공제되지 못하고 '전가의 원리'에 의해 다시 납부되는 것으로, 이처럼 면하고자 했던 세액이 다시 징수되는 것을 **환수 효과**라 한다.

⇒ 3단계 사업자가 더 납부한 20만 원 중 10만 원은 1)의 도표에서 화살표 ③만큼이 공제되지 못하여 '2단계 생산자가 면제 받은 부가 가치세액'만큼이 납부되는 것으로, 이를 '환수 효과'라 부른다. 이는 면하고자 했던 세액이 결국 납부되어 버리는 것이다.

5) **누적 효과**는 1단계에서 이미 납부된 10만 원의 세액을 3단계 사업자가 한 번 더 납부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 3단계 사업자가 더 납부한 20만 원 중 나머지 10만 원은 1)의 도표에서 화살표 ②만큼이 공제되지 못하여 이미 낸 세액을 다시 한번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이를 '누적 효과'라 부른다.

⇒ 이때 최종 소비자의 부가 가치세 부담은 면세 조치 이전과 달라지지 않는다. 3단계 사업자가 가격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소비자는 여전히 30만 원의 부가 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목] 국가 입장에서는 면세 조치를 취하여 20만 원의 부가 가치세액이 납부되는 결과를 의도했으나, 오히려 40만 원이 납부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문단5 : 역진성의 실질적 해결책

역진성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대안으로, 면세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저소득층이 부담한 부가 가치세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안이 있다. 신용카드 사용이나 세금 계산서 수수를 통한 증빙이 이루어졌을 때 부가 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면, 부가 가치세의 역진성이 완화될 뿐 아니라 거래 증빙이 활성화되면서 탈세를 막고 지하 경제가 겉으로 드러나 양성화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즉 납세자의 부가 가치세를 면해 주는 대신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즉 납세자의 부가 가치세를 환급해 주지는 거다. 이 경우에는 문단4와 달리 실제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



[26~30] 예술 : '손의 정신화'와 예술 활동의 본질

* 지문 평가

관점 중심의 지문이다. '알베르티'와 '바사리'가 '손의 정신화'를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잊지 않는 게 중요하겠다.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예술 - 서양 회화 - 손의 정신화
알베르티, 바사리, 숙련된 손, 교양 있는 손, 손의 정신화, 디세뇨, 주카리, 외적 디세뇨, 내적 디세뇨, 라이몬디, 뒤상, 개념 미술

* 지문 분석

문단1 : 화가의 재능을 상징하는 '손'

- 1) 화가가 모델로 등장하는 자화상이나 초상화에는 화가의 두상과 함께 손이 강조되어 있곤 한다. 이는 화가의 관념뿐 아니라 솜씨도 중시하는 미술사적 전통에 기인한다.
⇒ 그렇다. 이 경우 회화에서 화가의 두상은 '화가의 관념'을, 화가의 손은 '화가의 솜씨'를 상징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 2) 중세의 기록들에서 '손'은 화가의 재능을 대변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었고,
⇒ 마찬가지로의 얘기다.
- 3) 르네상스 시대의 알베르티와 바사리는 잘 '훈련된 손'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손의 숙련도는 화가의 관념과 함께 창작 활동의 본질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여겨졌던 것이다.
⇒ 그렇다고 '화가의 관념'보다 '화가의 솜씨'가 더 중요했다는 얘기는 아니다. 둘 다 중요하다는 얘기로 이해하자.

문단2 : '손의 정신화'

- 1) 미술사적 기록에 따르면 르네상스 시대에 이미 손은 숙련도나 정확도와 같은 물리적 활동 이상의 의미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당시의 화가들은 스스로를 장인이나 기능공과 구분하여 자신들의 손이 '숙련된 손'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성과 연결된 '교양 있는 손'임을 강조했던 것이다.
⇒ 장인이나 기능공의 '숙련된 손'은 물리적 활동에 불과했다면, 화가들의 '교양 있는 손'은 물리적 활동을 넘어서는 지성과 연결된 것으로 이해했다는 얘기가.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 2) 이는 단순한 숙련도를 넘어 창조성이라는 예술의 근본적 속성을 손에 덧입히려는 시도였다.
⇒ '창조성'이라 할 수 있겠다.
- 3) 알베르티나 바사리를 포함한 당대의 예술가들은 정신적 구상이나 상상을 통해 떠올린 형상을 화폭에 충실하게 현실화하는 것인 손의 정신화를 예술 활동이라 보고, 눈앞의 대상을 기계적으로 모사하는 손의 기능과 구분하였다.
⇒ 화가의 손은 '눈앞의 대상'을 모사하지 않는다. '화가의 관념'에 의해 떠올린 형상을 표현해 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양 있는 손'이 '창조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 것이겠다.
- 4) 손은 단순히 정신의 노예가 아니라 정신적 산물을 현실화하는, 창조성을 지닌 도구인 것이다.
⇒ 손이 관념을 형상화하는 창조적 도구로 받아들여진 것은 사실이지만, 손이 관념의 하위로 종속되어 있다고 인식한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가. 다시 말하지만 '형상'과 '손을 통한 형상의 현실화' 둘 다 중요하다.

문단3 : 알베르티와 바사리의 '손'

- 1) '손의 정신화'로 예술 활동을 설명하는 관점은 작품 제작에 앞선 관념의 존재, 즉 질료(= 형상을 갖춤으로써 비로소 일정한 것이 되는 재료)로

빛어내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 형상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맥락 짚기] 문단2-3)에서 짚었던 내용이다.

- 2) 그러한 관점하에 알베르티는 위대한 작품인지의 여부를 가늠하는 솜씨의 차이는 정신적인 것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 '알베르티'는 '화가의 손'에 의해 현실화된 어떤 작품의 위대함이 그 '형상의 위대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봤다는 거다.
- 3) 회화는 손 이전에 정신의 예술이기 때문에, 정신적 구상의 부족함은 방황하는 붓놀림을 낳고 곧 작품의 실패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 이거 아무래도 '손'의 역할보다도 '관념'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본 입장처럼 느껴진다.
⇒ 그렇다고 '알베르티'가 손의 역할을 간과했다고 오해하면 곤란하다. '알베르티' 역시 창작 활동에 있어 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다만 손에 의한 현실화 이전에 '좋은 형상'을 떠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을 뿐이다.
- 4) [작품의 실패를 설명하고자 할 때] 정신적 구상의 부족함에 초점을 두었던 알베르티와는 달리, 바사리는 예술가들의 위대한 상상력을 부각한다.
⇒ 약간 뜬금없는 얘기처럼 들린다. '위대한 상상력'과 '작품의 실패'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 5) 그는 다빈치나 미켈란젤로가 많은 작품을 미완성인 채로 두거나 완성된 작품을 파기한 이유를 [관념이 떠올린 형상을 현실화하는] 손의 한계에서 찾았다. 제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지닌 손이 충실하게 옮긴다고 해도 무한하고 위대한 상상력을 손실 없이 구현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다.
⇒ '바사리'에 따르면 작품의 실패는 관념의 문제가 아니다. 관념에 의해 떠올린 '창대한 형상'을 '손'으로 구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 6) 바사리는 회화를 위한 밑그림이라는 의미를 지닌 디세뇨를 소홀히 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는 상상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더 중시했던 것이다.
⇒ '알베르티'가 작품의 실패가 정신적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하였다면, '바사리'는 손의 무능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주목] 그러나, 문단1에서부터 강조했듯이, '알베르티'와 '바사리'는 공통적으로 손을 통한 형상의 현실화와 손의 창조성을 인정하였다.

문단4 : 관념의 영역으로 이동한 예술의 본질

- 1) 바사리의 관점은 르네상스 후기에 예술의 본질을 관념의 영역으로 옮겨 놓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맥락 짚기] '손의 정신화'가 예술의 본질에 대한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따라가 보자.
⇒ '바사리'의 주장은 결국 현실화 여부와 무관하게 관념에 의해 떠올린 형상에는 아무런 흠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를 고려했을 때 '르네상스 후기'의 이러한 변화는 당연한 귀결이겠다.
- 2) 화가 주카리는 디세뇨를 외적 디세뇨와 내적 디세뇨로 구분했는데, 전자는 회화, 조각, 건축과 같은 실제적 재현을 의미하며, 후자는 정신 속에서 이상적인 형상을 구현하는 것을 뜻한다.
⇒ 전자는 '실제 작품', 후자는 문단3-1)에서 설명한 '떠올린 형상' 정도를 의미하겠다.
- 3) 이후 작품 제작을 위한 실천적 원리[→ 현실화의 원리] 대신에 내적 디세뇨에 관한 담론이 중시되었고 예술은 손 이전에 정신의 문제가 되었다.
⇒ 당연한 귀결이겠다.
- 4) 라이몬디의 동판화에 등장하는 화가 라파엘로가 망토 속에 손을 감춘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 문단1-1)에서는 '손'을 강조하였다면 이번에는 '손'을 감추었다. 실제 작품을 제작하는, 형상을 현실화하는 손의 위상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잘 보여 주는 예시겠다.



- 5) 나아가 라파엘로가 손이 없이 태어났더라도 그의 정신에 구현된 것만으로 위대한 예술가라는 극단적인 입장이 등장하기도 했다.
 ⇒ 평범한 생각은 아닌 것 같다. 예술은 아예 '현실'에 구현될 필요도 없으며, 그저 '관념'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겠다.

문단5 : 손에 의한 현실화를 외면하는 현대 회화의 경향

- 1) 이렇듯 손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손의 정신화' 개념은 역설적이게도 예술 활동의 본질이 손에 의한 현실화에 있지 않음을 주장하는 관점으로 이어졌다.
 ⇒ 잊지 말자. '알베르티'와 '바사리'가 '손의 정신화' 개념을 강조한 것은 어디까지나 손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 2) 이 관점은 구체적인 작품 제작을 외면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으나,
 ⇒ 화가의 머릿속에서 끝나는 예술이 무슨 예술이냐는 거다. 그러나
- 3) 현대 회화의 주요한 한 경향으로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다. 기성의 산업 생산물을 옮겨 전시한 **뒤상**의 작품이나, 예술가의 아이디어나 개념 그 자체가 작품이며 이의 현실화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개념 미술**이 대표적이다.
 ⇒ 아무리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해도 부정할 수 없는 현대 회화의 한 흐름이라는 결론이다. 개념 미술의 길을 닦았다고 평가받는 뒤상의 작품 중 「샘」을 보며 마무리하자.



이감